

이선희 경북도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로 광역의회 개인부문 최우수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은 27일 지역 통합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이 의원은 지난해 「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잇따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며 자치입법 분야 발전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

역문제해결플랫폼 활성화 지원 조례」는 도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통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지역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경상북도의 지원 사업, 지역문제 해결 협의를 위한 경상북도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협의회 및 집행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했다.

한편,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사업은 행안부 주도로 2018년 대구, 강원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경북의 경우 2022년에 사업을 시작했고,

2023년 기준 총 13개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그간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 중심의 획일적인 해결방안이 적용되어 왔으나 다양한 사회주체들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며, 행정기관 중심에서 주민과 지자체·공공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 논의해 나가는 협력 요구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주체와 공공기관이 소통과 협력을 통해 유대감을 강화하고 주민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하는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을 제도화하여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고 밝히며,

“도의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통해 이런 상까지 받게 되어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치법규 발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 의원은 재선으로 지난 제11대 경북도의회에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그 동안의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현안과제들에 대한 연구개발 및 대안제시에 주력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근수/기자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선정을 위해 대안책 제언

탄소중립 Re100 도시, 아산의 새로운 지향점'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이 2월 27일,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Re100 도시, 아산의 새로운 지향점'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미성 의원은 세계 최초의 친환경 도시라 불리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도시를 언급하며 “아산시도 탄소중립 도시로서 새로운 도시 모델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발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탄정2 도시개발사업은 2만 천 세대, 4만 5천 명을 수용하는 비수도권 유일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자, 공공인 LH가 개발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며 “약 400억 원 국비 투자를 지원할 전망이다. 환경부 '탄소중립도시' 공모사업을 적극 이용한다면 탄소중립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탄소 감축량이 어느 정도인지 환경부는 정량적인 수치를 원

하지만, 아산시가 제출한 사업 참여 의향서에는 '조사 자료가 없고 조사에 많은 시일이 필요하다'고 기재됐다”라며 “아산시는 탄소 배출 감축량에 대한 정량 수치 분석을 심도 있게 조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산시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 사용이 높은 산업체들이 밀집된 지역인 만큼 아산시 차원의 Re100 지원은 필수”라며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Re100 캠페인 참여를 요구받는 기업이 많아짐에 따라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탄정2 도시개발의 주요 콘셉트가 '15분 생활권'이라며 “탄소 저감을 위해 주거-일자리-문화가 15분 내로 가능한 혁신적인 대중교통 체계와 같은 새로운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원호/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 “SH공사 리버버스 등 한강 개발 사업 참여 근거 마련”

박석 의원 발의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에 “한강 수상 및 수변 개발에 따른 건설 및 운영·관리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H공사가 한강 리버버스 사업을 위해 '(가칭)한강리버버스 주식회사'에 51억 원을 출자하는 것에 대한 동의안도 상임위를 함께 통과해 10월 운항 예정인 리버버스 사업 추진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리버버스 외에 상암동 대관람차 조성 사업 참여를 위해 서울시에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앞두고 있고, 한강 수상관광호텔, 한강 곤돌

라 등에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는 한강 중심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SH공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SH공사가 한강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들이 공공성을 확보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서울시 '글로벌 매력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 조례 개정안은 29일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최광수/기자

안동시의회 문화복지정책연구회,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안동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복지정책연구회는 27일 의회청사 2층 회의실에서 '이상동기 범죄방지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용역은 정확한 동기가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착수하여 3개월간 진행했다.

주요 연구내용은 ▲이상동기 범죄의 현안 및 동향 분석 ▲안동시민과 유관기관 종사자에 대한 설문조사 ▲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 모색 ▲대외적 인프라 및 협력 강화 방안 ▲실행을 위한 정책 기반 제시 등이다.

연구회 소속 의원, 안동경찰서·안동소방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최종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수행했던 현황분석, 사례분석, 설문조사 등과 중간보고회에서 제기된 보완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실태에 맞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우범지역 환경개선, AI기 활용, 잠재적 범죄자 특별관리 등 예방 차원의 방안과 신속 대응

협력체계 구축, 공공시설 호신용품 비치 등 대응 차원의 방안, 그리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밀도 있게 논의됐다.

우창하 연구회 대표의원은 “범죄 발생 전에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범죄 발생 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담병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가 절실하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성남시의회, '3분 조례 - 정용한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정용한 의원,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정용한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용한 의원 등 12명이 발의한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이다. 지난해 5월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옥외영업기준을 조례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옥외영업 허용의 제도적 취지

를 살리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방지해 주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시설 기준과 안전관리 수칙, 위생관리 수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여건이 개선되고 시민들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업소를 이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조례는 2023년 12월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



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김병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편집국장:최재은.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경 제 부:내선 (114)	오 리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특별시 개봉로 12길 9-19 로얄합타운 102동 202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 초등학생 85.8%, 생존수영교육에 만족

시군 협력해 안정적 예산 확보, 학생 수준에 맞는 운영 결과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학생 10명 중 8명인 85.8%가 생존수영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 87.6%, 학부모 81.6%도 생존수영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3 생존수영교육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3월부터 12월까지 생존수영교육에 참여한 31개 지역 1,343교 262,627명 중 초등학생 57,062명, 교사 4,645명, 학부모 43,116명이 응답했다.

학생 응답자의 85.8%가 '생존수영 수업이 재미있었다'고 답변했고, '나는 물건의 도움 없이 10초간 물에 떠 있을 수 있다'에 68.2%, '물에 자신감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졌다'에 74.8%가 '그렇다'로 응답했다.

이는 생존수영교육의 목적인 학생들이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 있게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사 92.2%가 '생존수영 강사는 수영교육 교수 능력이 뛰어났다'고 응

답했고, '생존수영 수업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됐다'는 질문에 97.3%가 '그렇다'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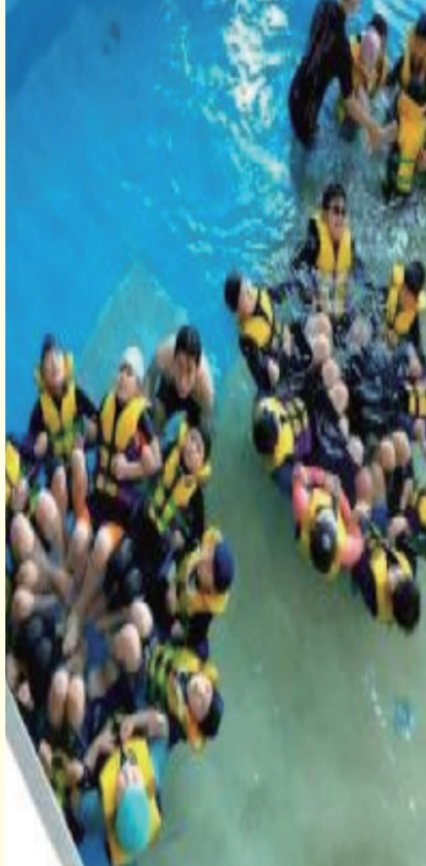
학부모 77.4% 이상은 '생존수영 수업이 위기 상황에서 적용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고 응답했다.

이는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 31개 시군 협력으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수준에 맞게 필수 과정으로 편성·운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도교육청 김상용 체육건강과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수영장 확보 노력, 학교행정업무 경감, 주민 인식 개선 등 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겠다"라며 "지자체, 지역수영장과 협력하고 소통해 생존수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수영장 199교, 이동식수영장 32동을 활용해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오는 3월부터 초등학생 258,089명이 234개 수영시설을 활용한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에서 내부감사 기능 강화와 탄력적인 정원관리 제안

임광현 경기도의원, "지역문화재생사업 방안 모색하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7일 '2024년 경제투자실 및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기관의 내부 감사 기능 강화와 탄력적인 정원관리 운영을 제안했다.

김선영 의원은 "내부 감사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으로 위험 관리,

내부 통제 등을 통해 조직 목표 완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그러나 내부 감사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업무가 많아 내부 감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실시한 경기도 산하 27개 공공기관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 5곳에 자체 감사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인력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도 공공기관 감사 1인당 담당 직원 수 평균은 83명으로 특히 경기도경제과학원은 129명으로 나타났다.

김선영 의원은 "내부 감사 기능이 정착되면 직장 내 괴롭힘 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감사 인력 충원을 고려하는 등 공공기관 내

내부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선영 의원은 도 공공기관의 정원관리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공무원 정원과 연계해서 공공기관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라며, "양질의 도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정원관리 담당 부서 등 관련 주제 간 정담회를 실시하길 바란다"라고 제안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지침'에 따르면, 도 공무원 정원 증가를 범위 내에서 공공기관 일반정규직과 공무원(무기계약직)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만 공무원과 공공기관 정원이 연계돼 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 현안 정담회 개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소통하고 특정 분야와 지역이 소외되지 않아야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7일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의 임원진들과 정담회를 사회적경제국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경기 북부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 사회에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내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고, "정담회를 통해 열악한 북부지역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안고 있는 현안을 논의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정담회는 박재용 의원을 비롯한 경기북부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맹두열 회장, 강상열 연구소장, 양주시 사회적경제협의회의 송영진 부회장, 오미정 사무국장,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재영 사무국장, 의정부시이중협동조합연합회 최혜영 운영위원, 포천시 사회적경제연대 오상은 회장, 최세훈 상임이사, 동두천시 사회적경제협의회 이옥재 회장, 최희신 부회장, 연천

군 사회적경제협의회 이정주 회장,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석중훈 국장, 사회적경제국 육성과 김하나 과장, 사회적경제국 육성과 김홍길 과장 등이 함께 참석해 ▲ 경기북부 지역 특화사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 TF 구성 ▲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방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정담회에 참여한 맹두열 회장은 "최근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기북부 사회적경제 조직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열악한 경기북부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기도 차원의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대안으로는 "경기 북부 5개 시군의 현안 의견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TF를 구성하고, 풀뿌리 사회적경제 조직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최혜영 운영위원은 "최근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이 소멸벤처 지원이나 유니콘기업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처럼 느껴지며 풀뿌리 조직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화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경기도 석중훈 국장은 "중간 지원조직을 활성화해 북부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모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 분야 가운데 특정 분야 또는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을 검토하고 보완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사회적 경제 조직의 제품에 대한 판로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라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정담회를 통해 북부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이 가진 고민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지역사회에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하고 특정 분야와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고,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김범상/기자



황대호 의원, 문지마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경기아트센터 보호해야!

감사실장의 폭언과 과도한 월권행위 등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지난 26일 열린 상임위 소관 부서 업무보고에서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의 문지마 감사와 갑질, 인권침해로 고통받는 직원에 대한 보호를 촉구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경기아트센터 전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실장의 갑질과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의 월권행위와 인권침해 등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라며 조목조목 질타했다.

먼저 황 부위원장은 예술감독 채용 서류심사에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에 대해 "심사위원은 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춰야 함에도 그 분야 전문성이 전혀 없는 감사실장이 심사위원으로서 채용을 하고 채용에 관여했다면 그 자체로 공정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이 자신에 대한 익명 헬프라인 제보 사건을 회의시간에 누설하고 이에 대해 전 직원에게 해명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을 명시하며 "감사실장은 피신고인으로서 이 사건에 스스로 회피하거나 제척되어야 하는 감사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감사의 기본조차 망각했다"라고 비판한 후, "감사실장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 전에 도의적 책임부



터 느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감사실장은 작년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방만한 태도로 임했으며, 경기아트센터가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이후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황 부위원장은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감사담당자 등의 회피 등을 규정한 '경기도 감사규칙' 제5조를 비롯한 내부감사규정 등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조치를 강구

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부위원장은 "경기아트센터의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은 도민의 명령이며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라고 단언한 뒤 "이는 감사행정에서도 마찬가지다"라며 "처벌보다는 예방과 소통 중심의 합리적 감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감시와 조력을 병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황대호 부위원장은 유튜브 '큰 호랑이 황대호TV' 채널(<https://youtube.com/shorts/VvfQSHPI6-8?si=RRWeM1sh4rsNN8uW>)을 통해서도 경기아트센터 감사행정의 정상화를 재차 촉구했다.

김범상/기자

Art Valley ASAN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 문화예술플랫폼이
펼쳐집니다

고품격 문화예술 도시 **아산**
신정호 **아트밸리**를 품다

광주시, 2024년 제2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광주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2024년 제2차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 연차별 시행 결과 심의를 위해 열렸으며 2023년 광주시가 추진한 31개의 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시행 결과와 12개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과제에 대한 시행 결과가 보고됐다. 또한, 대표성과 우수사업 선정 사례 등도 공유됐다. 시는 지난해 지역사회보장 대표성과로 문화·체육 인프라 및 양육 친화 플랫폼 확충, 청년 및 청소년 전용공간 활성화, 시민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철도사업 추진 및 광역버스 운행 확대, 위기 이웃 발굴을 위한 인적 자원망 구축 등

을 선정했다. 또한, 우수사업으로는 유니버설 디자인 기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시민 문화 여가 공간 조성 활성화, 미래세대 문화 활동 및 체험 공간 확대 사업을 선정했다. 방세환 시장은 "지역사회보장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영역을 넘어 돌봄, 보호안전,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여가,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 법적 보장제도"라며 "대표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 및 통찰력이 협력과 소통으로 빛을 발해 앞으로 광주시 사회보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안양시, 이동장치 주차구역 24개소 설치... '공유자전거·PM 실무협의체' 개최

주차구역 내 주차 시 인센티브 제공, 민원처리 핫라인 개설 등 운영 방안 마련



안양시는 공유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장치(이하 PM)의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고자 관악역, 평촌학원가, 안양종합운동장 주변 등 관내에 지정 주차구역 24개소를 설치 완료했다. 또 지정구역 내 주차 및 반납을 활성화하고자 3월까지 운영업체와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6일 시청 별관(주민참여예산방)에서 안양시 공유자전거 및 PM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8월 공유자전거 및 PM의 무단주차·방치로 인한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지속되고 안전사고

가 야기됨에 따라 안양시 도로과, 철도교통과, 생태친과 등 관련 부서, 관내 경찰서 및 공유형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7곳)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노력해왔다. 이날 협의체는 민원처리를 위한 핫라인 운영,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반납 금지 확대, 주차금지구역 반납자에 패널티 부과 철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는 무단방치 및 보행 불편으로 접수되는 민원을 운영업체가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 핫라인을 3월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운영업체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하천 등 주차금지구역에 반납하는 이용자에 대해 2회까지 경고, 3회부터 일정 기간 이용을 금지하는 패널티 부여 등을 철저히 시행하기로 했다. 최태호 안양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서, 운영업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보완해가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운행수칙, 주차구역 내 반납 등을 실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화성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대책회의 개최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화성시가 27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청 5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진료대책반 ▲상황총괄반 ▲점검지원반 등 3개반 10개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과 관계 부서장들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상황변경에 따른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우선 전국의 사적서 제출 및 근무지 이탈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 확인서 징구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달 3일 예정돼 있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따른 개원의들의 집단휴진 예정일이 확정될 경우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의응급 휴진율이 30%를 넘길 경우 관내 3개 보건소 진료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하고 각 보건소 및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재난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관내 의료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이송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응급의료포털에 안내 중이며, 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119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시현/기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영유아 부모 교실·모유수유 교실 운영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오는 3월부터 출산 준비·영유아 부모 교실, 모유수유 교실을 각각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출산 준비·영유아부모교실은 임신부터 영유아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3월에서 11월까지 총 18기(36회)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임산부가 알아야 할 혜택 ▲산후우울증 예방 ▲아기용품 만들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되며, ▲영유아 안전 돌봄 교육 ▲미디어 노출 줄이기 등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표다. 모유수유교실은 3월에서 11월까지

총 18기로 진행되며, 37주 이상 임신부, 3개월 이내 출산부·수유부를 대상으로 비대면 ZOOM 강의와 대면 교육을 병행해 대상자들의 편의를 고려했다. 해당 교실에서는 ▲모유 생성 시기에 따른 특징 ▲올바른 수유 자세 등 모유수유에 필요한 주제들을 다룬다. 최진숙 상록수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한 출산 및 아이 키우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하남시, 망월천에 유류 유출한 사업장 고발 조치 예정...방제 총력

망월천으로 석유제품을 유출한 오염행위자 적발

하남시가 석유제품(등유)을 망월천으로 유출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A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2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오후 망월천에 기름이 흐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부서인 환경정책과 직원을 급파해 유류 확산을 막는 흡착봉과 흡착포 등을 설치하는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미사강변루나리움 아파트 앞 우수박스에서 유류가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유출지점 인근 우수관로와 우수맨홀을 점검하는 등 발생 원인을 역추적한 끝에 유출 다음 날인 26일 유출지점으

로부터 약 800m 떨어진 A 사업장에서 유류가 흘러나온 사실을 파악했다. 망월천으로 흘러간 유류는 A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난방용 유류탱크에서 관리소홀로 유출된 등유로, 우수관을 거쳐 망월천으로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A 사업장에 물환경보전법 위반 법령을 적용해 업무상 과실로 인한 공공수역 오염으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하남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오염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이른 시일 내에 오염된 공공수역을 회

복시키고, 수질오염사고를 예방을 목표로 공공수역 오염행위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김범상/기자



설 선물은 자연과 농부의 진심을 담은
봉화장터에서!



<http://Bmall.go.kr>

특산물을 구입하시려면 인터넷에서 '봉화장터'를 검색하시거나 위의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남도, '작은영화관'서 아파트 화재 피난요령 알린다

3월부터 홍보영상 상영...전국 영화관 확산 부처와 협력키로

전남도는 오는 3월부터 지역에서 운영 중인 11개 작은영화관에서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 영상을 상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에 비해 화재 건수는 줄고 있지만 아파트 화재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여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피 방식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아파트 화재는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 사안이고 전 국민 대상 홍보가 필요하므로 전국 영화관을 통해 홍보하면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고 아이디어를 제시해 추진하게 됐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행정안전부와 문화관광체육부에 아파트 화재 시 피난 행동요령을 전국 영화관에서 분영과 상영 전 방영토록 해줄 것을 건의, 관계부처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

전남도는 노후 아파트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우선 도내에 운영 중인 작은영화관에서부터 대피 영상을 상영하도록 영화사와 협의해 오는 3월부터 인트로 상영을 할 방침이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공익광고이니만큼 전남지역 작은영화관을 시작으로 전국 영화관까지 조속히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겠다"며 "아파트 매매 시 공인중개사가 해당 아파트 소방 및 피난 안전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도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안전교육, 민방위 및 안전한국 훈련에 아파트 화재 예방과 화재 시 올바른 대피 요령을 포함해 교육·홍보할 방침이다.

박종배/기자



순천시, 2024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선도적 추진 인정 결과

순천시는 27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년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선도적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게 됐다. 시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조성한 그린아일랜드, 오천그린광장 등 도심 속 탄소흡수원 확대와 전 시민이 참여하는 차량 2부제 등 시민 참여와 교육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2040 탄소중립 전략 수립 및 탄소중립 정책의 전담 조직인 기후에너지과를 호남 최초로 신설하는 등 정책 체계성과 연속성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노규균 순천시장은 "3대가 잘 사는

명품 정주도시 조성을 위해 순천이 지켜온 '생태'가치 중심으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대자보도시 구현, 신재생에너지 전환, 저탄소 미래 신산업 육성, 탄소흡수원 확대·보전 등 탄소중립을 선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올해 14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관하여 2010년 제정한 국내 최초의 기후변화 종합시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시상해 왔다. 올해는 공공, 외교, 자치 등 7개 부문에서 총 17곳을 선정했다.

이승준/기자



함평군, 관계인구 활성화를 통한 인구감소 대응에 나선다

'함평형 관계인구 정책수립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전남 함평군은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함평형 관계인구 정책 수립 및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최근 새롭게 대두된 개념인 '관계인구'의 증대를 통해 함평군의 지역소멸 및 인구감소 타개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관계인구'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가, 업무, 사회적 기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인구를 말한다.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는 지난 1일 개최한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요지역 중점 연계사업 △복지·건강 분야 사업 △사업계획 시 인구영향평가 추진 방안 등 함평군의 관계인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이번 용역은 정주 인구를 넘어서 관계인구 활성화를 통한 우리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다각화된 인구 포용 정책의 도입으로 지역의 인구 유출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인공태양이 대체 뭐길래' 나주시,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 개최

과기부, 2025년 상반기 부지 공모 대비 주민 역량 결집



밝혔다. 설명회에선 '태양과 인공태양의 비교',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 필요성', '나주 유치의 당위성',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 '유치 시 파급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참석한 주민들과 질의응답도 진행한다.

특히 인공태양이 생산한 주민들의 주된 관심사인 '시설 안전성' 문제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 알기 쉽도록 설명함으로써 주민 신뢰와 수용성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인공태양'이란 바닷물 속 수소를 원료로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대용량의 핵융합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무한 청정에너지 생산 장치로 정의할 수 있다.

수소 1그램으로 석유 8톤의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갈돼가는 화석연료 대체와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현할 꿈의 에너지원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료공급을 중단하면 즉시 가동이 중단된다는 점에서 폭발이나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장점이다.

나주시에 유치가 사활을 건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발전소가 아닌 향후 본격적인 기술 상용화에 필요한 인공태양을 연구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실증하기 위한 연구시설이다.

이에 시는 에너지산업 분야 연구·개발의 최적 요건을 장점으로 인공태양과 핵융합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전라남도 연구시설 유치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나주는 미래 에너지산업 제도와 기술적 기반을 완성해가고 있어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최적지로 꼽힌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분야 특화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주관으로 2022년부터 인공태양 8대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초전도 도체' 기술 개발에 필요한 시험설비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7년 가동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무엇보다 켄텍에서 양성하는 과학기술 전문인력 충원의 용이성과 한국전력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등이 빛가람 혁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풍부한 연구기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김영만/기자

강진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열려

차영수 운영위원장, '2028전남세계도자·세라믹산업엑스포' 유치 필요성 홍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5차 정기회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강진에서 개최됐다.

이날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동욱 전라남도의회 의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황성환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등이 정기회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했다.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정기회는 협의회 부회장인 차영수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의 적극적인 의지로 3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됐다.

특히 2024강진청자축제 기간에 개최해 전남의 우수한 도자문화의 가치와 경쟁력을 알리는 동시에 '2028전남세계도자·세라믹산업엑스포' 유치의 필요성을 홍보했다.

행사를 주관한 차영수 운영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다산의 청령과 애민정신이 깃든 강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회가 지방의회의 권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도화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2028전남세계도자·세라믹산업엑스포 유치가 전남 도자산업의 세계시장 진출 및 미래형 도자산업가가가 창출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께서 함께 응원에 주고 성원에 주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을 회원으로 하여 시도의회 간 공동현안을 협의하고 지방의회의 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논의하는 의정협의회의 실무기구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노동자 비자 확대와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지방의회 공동현안을 처리했다.

박종배/기자



남원시, 행안부 마을기업 3개소 최종선정

재지정 마을기업 2개소, 고도화 마을기업 1개소

남원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간재지정 마을기업에 농업회사법인 (주)비즈양조(대표 문성호), 영농조합법인 하주밭마을(대표 한충문), 고도화 마을기업에 농업회사법인 웅치마을영농회(대표 최미아)가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

위의 기업을 말한다.

남원시는 이번 마을기업 선정을 통해 사업비 8천만원을 확보했으며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지정 마을기업에 지정된 농업회사법인 (주)비즈양조는 금지 입암마을의 농촌 내 폐자원을 활용한 지역 소득향상과 마을공동체 기반 육성을 위한 '전북형, 햇살 가득 농촌재생 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되어 정미소를 현대화한 마을 주민 중심의 농업회사법인으로, 마을기업을 통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대한민

국 최고의 전통주를 양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을기업이다.

주천 하주밭마을 영농조합법인인 마을의 농산물과 마을 어르신들의 노하우를 활용한 밭농사와 밭농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기업으로 법인이 속한 하주마을은 향토산업마을, 장수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 팜스테이마을 등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속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마을이다.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웅치마을영농회는, 주천면 웅치마을에서 마을의 농산물을 활용해 직접 개발한 옥수수강정을 시작으로 참깨명품강정과 들깨강정, 홍시 조청, 예

너지바 '지켜줄까' 등을 생산하여 오프라인 매장과 우체국 소핑몰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HACCP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을 유지하며, 무궁화, 메리골드, 금화규 꽃 등을 주민들과 함께 재배하여 마을체험과 치유농업으로 연간 2천여명이 방문하는 마을로 성장하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사회공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기업이 지역 내에 잘 자리 잡고, 더 많은 마을기업이 발굴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경북도, 추석에 만나는 복숭아 신품종 '만월' 개발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청도복숭아연구소는 맛과 향이 뛰어난 극만생종 백도 신품종 '만월'을 육성해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했다. '만월'은 지난 2003년 '서미골드'에 '홍설도'를 인공교배해 20년간의 육성 과정을 거쳐 개발한 품종으로 과중 400g, 당도 13브릭스 이상인 대과형 백도 품종이다.

20년 만의 결실, 과중 400g 당도 13브릭스 대과형 고당도 백도 신품종

성숙기는 9월 중순에서 10월 상순(청도군 기준)으로 추석 명절 특수에 맞춰 수확하며, 과실이 단단하고 유통 저장성이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 신품종은 국립종자원에서 실시하는 2년간의 재배심사를 거쳐 품종보호등록이 완료되면 도내 주요 재배 지역에 보급된다. 청도복숭아연구소는 복숭아 산업 경

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외 소비 트렌드에 맞는 고품질 복숭아 품종 개발을 목표로 현재까지 총 17 품종(품종보호등록 13, 품종보호출원 4개)을 육성했다. '미향', '금향', '수향' 등 다수의 황도 품종을 개발 보급해 농가로부터 황도 육성기관으로 주목받았으며, 최근에는 '홍백'을 시작으로 '스위트하백', '은백', '미소향', 올해 '만월'까지 잇따라 선보이며 백도 품종 육성에서도 두드러지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홍백' 등 10품종을 통상 실시 업체를 통해 농가에 보급했으며, 총 35만 8천 430주, 1천 195ha로 전국 재배면적의 5.9%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이번에 육성한 '만월'은 기술원에서 처음



개발한 극만생종 품종으로 복숭아가 홍수 출하되는 시기(8월)를 벗어나 수확되므로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추석 특수를 겨냥해 농가 수입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라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우수 신품종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영덕군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금액에 대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을 이달 29일까지, 대면 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화하기 위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 연간 130만 원을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을 구간별로 3단계로 구분해 ha당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소농직불금 단가가 지난해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됐으며, 준수사항 중 '영농 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영농 기록 작성·보관'은 계도기간이 작년보다 종료됨에 따라 미이

행에 따른 감액률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비대면의 경우 2023년 기본직불 등록 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에 적합한 농업인에 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송한 안내 문자를 통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콜센터(1334)로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은 해당 농지가 소재한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며,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한 농업인 중에서도 신청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각 읍·면사무소에서 변경 등록할 수 있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10월까지 영덕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장문화/기자

울진군 방주명가 '참발효어워즈 2024' 된장, 고추장 부문 대상 수상

울진군은 금강수면 생선리 소재 방주명가영농조합법인이 지난 24일 '참발효어워즈 2024'에서 된장(방주품된장), 고추장(방주품부리고추장) 부문에서 각각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참발효어워즈는 내일의 식탁 주최·참발효어워즈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발효식품 전문 시상식으로 국내산 농산물을 사용해 만든 우수 발효식품을 찾고 그 참맛을 소개한다.

이번 시상식은 총 5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간장, 고추장, 된장, 막걸리 등 총 20점을 선정했다.

방주명가는 1986년부터 자연농법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받은 업체로 2002년부터는 친환경 콩과 고추로 전통장류 제품을 생산해 온 가업승계형 기업이다.

강문필 방주명가 대표는 "이번 시상식은 시민 맛 평가단이 함께 참여하여 시민 스스로 건강하고 맛있는 발효식품을 선정하여 그 뜻이 깊으며, 더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에서도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관광산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여 가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2025 APEC 정상회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정상회의는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에 선 보이는 자리

오는 2025년 1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 중 하나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유치전이 전개되고 있다.

현재 경상북도 경주, 인천, 제주 등이 유치 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구성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개최도시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평양 연안 21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APEC은 전 세계 GDP와 교역량의 과반을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협력체로, 전 세계 매스컴이 집중 조명할 정상회의는 개최국과 개최도시가 세계로 알려질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K-팝과 K-드라마를 비롯한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이 시점에서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메가 이벤트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 정상회의는 단순히 회의만 하는 역



할에 그치지 않는다. 개최국의 국격은 물론 한 나라의 외교·경제·문화적 영향력을 세계에 선보이는 자리로, 특히 APEC의 경우는 개최도시의 정체성이

수 없다.

신라천년의 고도로서 찬란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경주는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로서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역사문화의 보고이자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 할 수 있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은 형형색색 단풍이 최절정에 달하는 시기로, 세계 정상과 배우자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월정교 등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이 전 세계로 퍼진다면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일 것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는 실�크로드의 시작점이자 종착점으로서 고대 국제교류의 상징으로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드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교류하던 국제도시였던 경주를 이제 다시 세계무대에 선보이는 일은 어쩌면 지금이 당연한 일이다."고 밝혔다.

윤태용/기자

안동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2024년 자활사업'에 40억원 투입

4대분야, 16개 자활사업단 운영으로 200여명에게 일자리 제공

안동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주민의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33억 원을 투입해 16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여 2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한다.

자활사업은 유형에 따라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으로 구분되며 읍·면·동에서 직접 추진

하는 근로유지형 외 다른 사업은 경북안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 운영 중으로, 참여자 본인의 특성을 고려해 16개 자활사업단에 배치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16개 사업단에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카페사업, 세차·청소·주차사업, 목공예품 제작사업, 식당 및 반찬가게 사업

등이 있어 참여자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자활참여자의 욕구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발굴에 적극 노력해, 저소득주민이 안정적인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자 모집

의성군은 군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탄소중립생활실천을 위한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탄소중립포인트(자동차)의 경우 차량 등록 후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에 따른 기준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실적에 따라 연 1회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차량은 의성군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 친환경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는 제외된다.

모집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21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여희망자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회원가입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휴대폰으로 발송하는 문자를 통해 자동차 전면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제공받을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하고 탄소배출은 줄이고 인센티브는 올리고

탄소중립포인트 | 자동차 | 참여 안내

1차 모집기간 '24.2.26(수) ~ 3.29(수)

2.26~3.08: 신규 신청, 2.26~3.08: 1차 모집, 3.09~3.22: 2차 모집, 3.23~3.29: 3차 모집

2차 모집기간 '24.4.1(수) ~ 4.12(수)

4.1~4.12: 2차 모집

- 참여대상** 1차 신청을 승인·승인대상(2인승 이하) 또는 2차 신청을 승인·승인대상(2인승 이하) 차량 소유자
- 참여방법**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www.iseon.go.kr)에서 신청 또는 QR코드로 참여 안내
- 참여혜택** 1회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 지급(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 차량은 의성군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로 친환경자동차(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등)는 제외된다.

탄소중립포인트 문의: 1660-2030

의성군

2024년 농어민수당 신청 접수

신청기간: 2.1.(목) ~ 3.15.(금)

온라인(모이스) QR코드 신청하기

- 신청기간:** 2.1.(목) ~ 3.15.(금)
- 온라인:** 2.1.(목) ~ 2.16.(금)
- 오프라인:** 2.19.(월) ~ 3.15.(금) (온라인 동시)
- 대상:**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한 농업인
- 장소:** 온라인(모이스 시스템) 신청 및 방문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 내용:** 지역상품권 60만원 지급(상반기 30만원, 하반기 30만원)

이승로 성북구청장, 해빙기 대비 취약시설 합동 안전점검 나서

2월 26일~3월 22일 해빙기 안전관리기간 민관합동 안전점검



서울 성북구가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를 해빙기(2월~3월)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이승로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와 전문가 합동으로 지역 내 재난취약시설을 꼼꼼히 살피며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점검대상은 해빙기 지반 변형, 균열 등으로 낙석·붕괴사고의 우려가 있는 안전취약시설, 급경사지, 건설공사장, 등위험시설 등 총 300여 개소다. 성북구 합동 점검반은 ▲ 건축물의 지반침하, 균열

및 부등침하 ▲ 축대, 옹벽, 담장의 침하, 균열 배부름, 배수구 막힘 등 안전상태 ▲ 흙막이 주변 지반 균열 상태 및 버팀목 및 흙막이 판 거푸집 동바리 설치 상태 ▲ 시설물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승로 구청장은 27일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현장 합동 안전점검에 나섰다. 해당 현장은 지난해 잠마철 집중호우로 주택축대가 무너져 긴급 복구를 통해 안전 조치를 완료한 곳으로

이날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추가보강 등 후속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구는 해당 지역 재난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꼼꼼히 점검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해 구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 등에 대해 철저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해 구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구민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살펴보고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3월 말까지 급경사지, 건설현장,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관려부서 및 민간전문가 등과 점검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은 보수·보강작업을 실시하며,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은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정밀점검을 실시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성원/기자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 삶 속으로 ‘풍덩’

우 시장,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에 감사 표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 당부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더 세심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는 민생현장 방문에 대장정에 나섰다.

우 시장은 앞으로 매주 2~3회씩 진행될 ‘한걸음 더, 시민 속으로’ 2024년 민생현장 방문을 통해 시민 삶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역 주요 현안을 챙기고,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할 계획이다. 이는 어려운 시기 시민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갈 민생을 살피고 시민 중심 시정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는 우범기 전주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우범기 시장은 27일 ‘2024 민생현장 방문’의 첫 번째 방문지로 전북대학교 교병원을 찾아 지역 의료공백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우 시장은 전북대학교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돌아보며 유희철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비상진료대책에 대해 청취하고,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우 시장은 또 시민들의 의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주시보건소와 덕진보건소에서 운영 중인 비상진료대책 상황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3일 정부의 보건 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비상진료대책상황실도 가동하고 있다.

우 시장은 이날 첫 현장 방문에 이어 앞으로도 매주 꾸준히 전주시 주요 사업현장과 민원 현장, 민생경제 현장, 취약계층 시설 등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분야의 현장을 찾아 나설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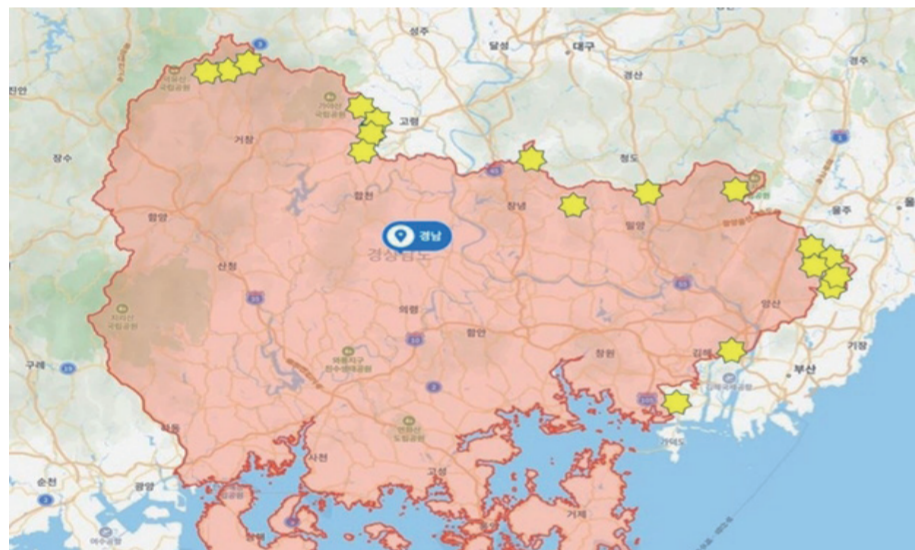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을 점검하는 것으로 현장점검 첫걸음을 뗀 우 시장의 ‘한 걸음 더, 시민 속으로’ 2024년 민생현장 방문은 오는 3월 1일 ‘2024 K리그1 개막전’에 맞춰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 및 교통 대책 점검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날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에 남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는 모든 의료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우리 지역 의료상황은 아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의료공백이 장기화에 접어드는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승일/기자

경남도, 야생멧돼지 유입방지 위해 기피제 살포 경계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차단 총력!

경북 등 ASF 발생지역 경계 시군 주변 위험요소 상재



경남도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출 지역이 경남과 인접한 경북과 부산으로 확대됨에 따라 경남도 경계 지역 양돈농가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경기·강원·충북·경북북부 지역에서 최근 남쪽으로 이동해 현재 경남과 인

접한 경북 영천과 부산(사하, 사상)에서 검출됐다. 겨울철은 먹이 부족 등의 이유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넓어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확산위험이 다른 계절에 비해 높은 시기이다.

이에, 경남도는 야생멧돼지의 접근 위험이 큰 경계지역 7개 시군의 양돈농가 18호에 대해 울타리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보

부 경남도본부 드론운영팀의 협조를 받아 지난 13일부터 27일까지 농장주변 야생멧돼지 접근이 예상되는 경로에 기피제를 살포했다.

아울러, 3월부터 경북·부산과 인접한 도 경계 6개 산악지역에 방역지원본부의 열화상 드론으로 야생멧돼지 수색과 이동경로 정보를 환경부서(포획단)에 제공하는 등 멧돼지 서식밀도 감소를 위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경북 영덕 양돈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사례를 보면 야생멧돼지에 대한 농장 차단방역 미흡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농가에서도 방역시설 운영, 장화 갈아신기,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올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 건수는 228건이며, 전국에서 경북이 206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이 15건으로 두 번째이다. 경북 영천 검출지점의 경우 경남도와 41킬로미터(km) 떨어져 있으며, 부산은 불과 9킬로미터(km) 떨어진 곳이다.

장재현/기자

질병관리청, 「해외유입 홍역 국내 유행 시나리오」로 중앙역학조사반 합동 소집훈련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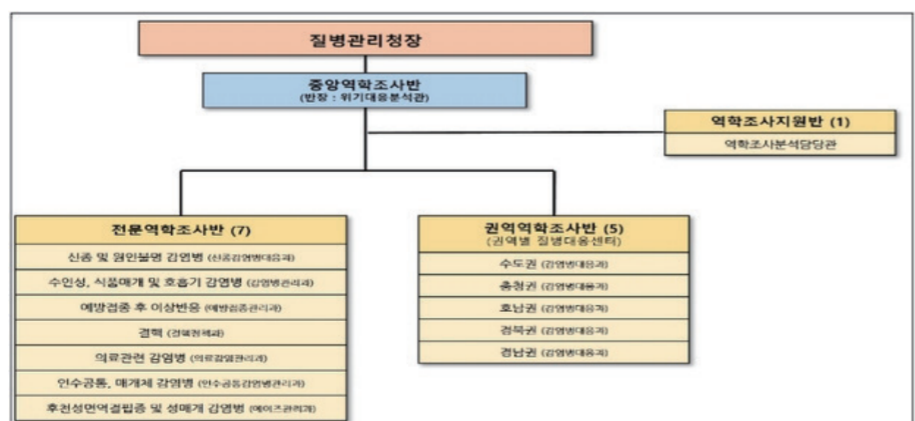
홍역, 해외유입(관련) 환자 발생으로 국내 유행 대비·대응을 위한 도상 훈련 실시

질병관리청은 2024년 국내 해외유입(관련) 홍역 환자(8명) 발생에 따라 국내 유행 확산 대비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2024년도 제1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2월 28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해외 여행 증가에 따라 국내 확산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국가 홍역 퇴치 인증(2014년) 이후 해외유입(관련) 사례만 발생하고 있으며, 2019년(194명) 발생 이후 코로나19 유행 동안 홍역 환자 발생이 없다가, 2023년(8명), 2024년 2월 현재 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중앙역학조사반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 유입 홍역으로 인한 국내 유행 상황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 신속한 현장 대응, ▲ 최적의 진단검사, ▲ 효율적인 역학조사, ▲ 접촉자 예방조치 및 관



리 등 전반적인 절차를 토의하고, 실제 현장 대응 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는 등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진행한다.

아울러, 중앙역학조사관으로서 감염병 발생 대비·대응 뿐만 아니라, 재난 상황에 따른 역학 대응도 중요하므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관 교수를 초청하여 ‘역학조사관의 새로운 도전(재난 역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위기대응분석관 홍정의 국장은 “2000년 1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역학조사반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다양한 신종감염병 출현과 감염병 발생 양상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중앙역학조사반은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 발생 및 해외유입 감염병에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성지아/기자

영양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먹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에 빠져드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WANG-GUN www.yyg.go.kr

길 단거리의 걷기 코스와 장거리의 걷기 코스를 소개합니다

물 영남의 물은 맑고 시원합니다. 영남의 물은 맑고 시원합니다. 영남의 물은 맑고 시원합니다.

빛 영남의 밤은 별이 가득합니다. 영남의 밤은 별이 가득합니다. 영남의 밤은 별이 가득합니다.

맛 영남의 맛은 다양합니다. 영남의 맛은 다양합니다. 영남의 맛은 다양합니다.

심 영남의 심은 따뜻합니다. 영남의 심은 따뜻합니다. 영남의 심은 따뜻합니다.

숲 영남의 숲은 푸르다. 영남의 숲은 푸르다. 영남의 숲은 푸르다.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분신계곡, 침백곡원, 죽백수림, 외씨버섯길
-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감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랑국제박물관보존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랑생태공원, 영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랑산촌생물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ida INTERNATIONAL ASSOCIATION calislow

강원도 축산기술연구소 2024년 시험연구사업 본격 추진

가축개량사업, 재래가축 보존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 등 3개 분야 13억 투입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소장 고재근)는 강원한우 보종씨수소 생산, 유전자원 보존·관리, 조사료 생산성 향상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과 축산 기술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시험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강원한우 우수 유전자원 확보 등 가축개량을 위해 9억원을 투입하여 종축 계획교배, 당대검정우 선발·검정, 후보·보종씨수소 선발 및 정액 공급, 암소

유전체분석, 우량암소 수정란 생산·공급으로 강원한우 브랜드 차별화·특성화를 위한 실증적 가축 개량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재래가축(침한우, 재래닭)의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3억원을 투자하여 유전자원 중 다양성 확보 및 멸종 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며, 급변하는 기후변화 여건에서 조사료 생산성 유지를 위해 초종별 생육상황 실태조

사, 농가 생산 조사료 품질검사·분석 등에 1억원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고재근 강원특별자치도축산기술연구소장은 "한우 암소·수소 양방향 검정체계 구축으로 개량기간을 단축시키는 동시에, 유전체분석을 통한 암소 조기 선발·도태 실증시험을 확대·운영하여 농가 경영부담비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호철/기자

충남도, 올겨울 평년 강수량 3배...배수 관리 중요

도 농기원, 맥류 재배 시 습해 예방 위한 배수·시비 등 관리 강조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8일 올겨울 연이은 눈·비로 가을에 파종한 밀·보리 등 월동작물의 습해가 우려됨에 따라 재배 농가에 물관리를 강조했다.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도내 평균 강수량은 210.6mm를 기록해 평년 78.1mm의 2.5배를 넘는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이 내린 비와 따뜻한 겨울 날씨에 맥류 재배 시 생육 불량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배수 불량으로 습해가 발생해 생육이 불량하거나, 생장이 저조한 곳

에는 최대한 배수로를 정비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겨울 동안 빗발로 인해 흙이 쓸려가면서 맥류 뿌리가 드러나고 뽑히기도 하므로 빗물이 마르고 나면 맥류 뿌리를 밟아주는 게 좋다.

아울러 요소 시비를 통해 생육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요소 비료를 2회로 나눠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1차 시비는 2월 중~하순, 2차는 20일 후에 4~5kg/10a씩 주면 된다.

조사료로 이용하는 정보리는 일반 보리보다 30% 많은 양(4.9~7.0kg/10a)을

2회로 나눠 시비하는 것이 좋고 토양과 품종 특성에 따라 가감해 주면 된다.

강우가 끝난 후에는 잡초 발생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맥류 재배지에 냉이 등 광엽 잡초 방제를 위한 제초제로 벤타존과 독새폴 전용 치벌선풀론 메칠 등을 사용해 방제하는 것이 좋다.

벤타존은 생육재생기 이후에 살포하고, 치벌선풀론메칠은 온도가 낮을 때 처리하면 약해를 줄일 수 있다.

현재 겨울비가 지속되면서 2월 상순부터 진행됐어야 하는 맥류 봄 파종 작업 시기가 늦어지고 있으며, 만약 3월

상순까지 지연되면 수확 시기가 2주가량 늦어질 수 있다.

파종 지연으로 과다 시비를 하는 경우 수확 시기가 더 지연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장지선 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연구사는 "따뜻한 겨울을 보낸 맥류는 생육 정지 기간이 거의 없어 작물이 약한 상태"라면서 "특히 습해가 우려되는 농가는 배수로를 깊이 정비해 배수가 빨리 될 수 있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2024 미래산업분야 지원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과학기술·디지털기반 37개 지원사업,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

충청북도는 26일 2024 미래산업분야 기업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오송 SB플라자에서 개최했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통합설명회는 우리도 기업지원 핵심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와 교육관련 충북지역대학혁신센터(RISE 센터)가 주도적으로 참여했으며, 도내 120여개 기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오프라인으로 처음 진행된 미래산업분야 통합설명회를 통해 기관별로 산재되어 수행 예정인 37개 미래선도분야 첨단전략사업에 대한 지원자격, 지원내용, 추진일정 등 총괄적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특별히, 기업 인력수요 및 인력양성 방향과 기업 R&D에로사항 청취 등 충북의 RISE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도 함께 진행했다.

설명회 동영상은 도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충북인터넷방송'에서 동시 송출됐으며, 향후에도 설명자료와 영상을 청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된다.

충북도 김진형 과학인재국장은 "기업 지원 사업발굴을 통하여 충북 미래를 이끌어갈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첨단산업을 육성해 나가고, 우리도 주력산업을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꿈과 끼' 성장 기회 되길"

아산시, '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교장에 뮤지컬 배우 박해미 위촉

아산시가 지난 26일 아산시 흥보대 사인 뮤지컬 배우 박해미를 '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초대 교장으로 위촉하고 본격 운영 준비에 나섰다.

'아트밸리 아산'이라는 도시브랜드와 함께 고품격 문화예술도시로 도약한 아산시는 국내 공연 문화를 선도하는 박해미 배우를 올해 창단하는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의 교장으로 위촉했다. 이를 통해 관내 청소년들에게 차별화된 뮤지컬 교육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인 양성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84년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로 데뷔한 박해미 배우는 뮤지컬 '맘마미아', '캣츠', '아가씨와 건달들' 및 드라마 '하늘이시여',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 등에 출연해 전 연령층의 사랑을 받았으며, 현재 에이치제이엔터테인먼트를 운영하며 다수의 뮤지컬 작품을 기획·제작·연출하고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 시장은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 교장직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해미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인사하고 "그간 쌓아오신 역량과 노하우를 아산시 청소년들을 위해 아낌없이 전수해 주시길 바란다"며 박해미 교장과 함께 꿈과 끼를 찾고 성장해 나갈 청소년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박해미 배우는 "아산시 뮤지

컬 꿈나무들을 양성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향후 청소년들이 뮤지컬 배우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아트밸리 아산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는 3~4월 중 단원 공개모집 및 오디션을 통해 '제1기 청소년 뮤지컬 아카데미'를 창단하고,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원호/기자



태백시, 2024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태백시는 2월 26일부터 3월 22일까지 청년농업인의 이차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2024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대상이 되는 정책자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귀농 농업창업자금(주택자금 포함)', '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원금상환 이전 거치기간 내 납부한 이자의 50%(최대 3,000천 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40세 미만 청년농업인(선정 당시 만 40세 미만인 자)으로 도내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청년창업농 및 귀농창업자금 융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어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거치기간 내 이자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이며, 청년농업인 부부가 각자 정책자금 대출을 실행한 경우 두 명 모두 선정될 수 있다.



사업희망자는 지원자격 충족여부를 확인 후 태백시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태백시 청년농업인의 이차 상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 영농기반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상근/기자

더 나은 하남

더 새로운 하남시의의회

감성의 빛으로 물든 서울의 지천(支川), 시민의 곁으로 성큼 다가서다

안양천·홍제천·중랑천 교량·내부순환로 하부에 경관조명 연출... 수변 문화공간-걷고 싶은 안전한 길 조성

서울시가 안양천, 홍제천, 중랑천의 시민 활동이 많은 수변공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야간에도 시민들이 손쉽게 여가 활동·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고 활동하기 좋은 안전한 길을 조성했다.

안양천은 구로구·영등포구·양천구 경계에 위치하고 각종 체육시설과 정원이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신정교에 지역 특색에 맞는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영등포구에 위치한 신정교 동측에는 교량 하부면 120m에 간접조명을 설치하고, 교량 기둥의 곡선 면을 밝히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교량 하부 전체가 빛을 발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양천구에 위치한 신정교 서측에는 교량 하부의 기둥 양 끝을 밝히는 간접조명을 설치해 명암 대비를 통한 교각 구조를 드러냈고, 해당 지역 특색을 살린 장미와 벚꽃 풍경의 연출조명으로 교각을 장식했다.

홍제천은 DMC파크뷰자이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일반 주거시설이 인접한 홍연2교에서 연가교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걷고 싶은 안전한 길로 조성했다.

홍남교에서 연가교까지 약 550m 구간의 교각에 연출조명으로 일렁이는 물결을 형상화해 홍제천 위 무채색 일색의 단조로웠던 내부순환로 경관을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홍제천 홍연2교에서 연가교까지 약 1km 구간의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는 천변에 별도의 조명이 없어 어두웠으나 새로 보안등을 설치해 안전하고 아늑한 길로 변화시켰다.

중랑천은 인근에 휘경주공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밀집한 경계교에 경관조명



으로 수변 문화공간을 만들어 냈다.

경계교 하부에는 별도의 조명이 없어 주변 체육시설 미운영 시 더 어두웠으나 간접조명을 통해 어두웠던 교량 하부를 밝히고, 연출조명으로 교량 하부에 장미꽃풍경을 표현해 수변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중랑구에서 중랑천 진입로 중 하나인 경계교 지하보도에는 직접조명이 설치돼 통행자에게 눈부심을 유발했으나, 간접조명 설치로 중랑천 진입 순간부터 밝음과 편안함을 느끼게 개선했다.

수변 공간에 설치된 경관조명은 2024년 올해의 서울색인 스카이크랄 등 다양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며, 연출조명은 계절변화와 각종 행사에 맞춘 다양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다. 연출조명은 일몰 후 자동 점등되고 저녁 11시 이후 심야에는 빛공해와 수목 생육 등을 고려해 자동 소등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매력 있는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중랑천과 홍제천 등에 야간경관 개선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중랑천의 당현천 합수부에 조성될 만

남의 광장은 경관조명으로 매력적인 수변 경관을 연출한다. 또한, 주변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630m 구간에 보안등을 신선했다. 또한, 수목으로의 접근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홍제천의 연가교부터 사천교까지 600m 구간에는 내부순환로 교량 하부에 경관조명을 연출해 오가는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목으로 어두웠던 자전거도로와 보행로에 보안등을 신선했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앞으로도 시민 활동이 많은 한강 주요 지천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시민 여가 공간을 만들고, 밤에도 활동하기 안전한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김제시 알루미늄계 선두주자 대주코스(주) 김제자유무역지역 167억 투자

알루미늄 압출·가공, 국내 유일 기업 김제 동지 틀다



김제시가 알루미늄 업계 대주코스(주)의 김제자유무역지역에 167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시는 전북특별자치도·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과 함께 27일 대주코스(주)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김영자 김제시장, 배기환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양명환 대주코스(주)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통해 대주코스(주)는 김제자유무역지역 내 16,528.8㎡(5,008평)부지에 167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축하고 일자리 31개를 새롭게 창출할 계획이다.

대주코스(주)는 지난 1972년 설립(본사:완주 봉동)해 '알루미늄 한 길'을 걸으며 알루미늄 압출에서 가공까지 일괄 생산체계를 갖춘 국내 유일의

전문기업이다.

자동차 부품인 범퍼, 선루프, 사이드 실, 하우징, 배터리 등을 생산하는 국내의 자동차용 알루미늄 압출 소재 최대 공급 업체다

또한 폴란드, 미국, 독일 등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여 매출액의 40% 이상 차지하는 수출유망 기업이며, 지난 2023년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을 수상한 바 있다. 대주코스의 김제 공장 신축은 알루미늄 압출재(원자재)인 빌렛의 자체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생산기지로 자동차 부품의 친환경·경량화 소재 시장의 주요 공급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7월 김제공장 착공함으로써 알루미늄 제품 제조를 위한 '빌렛 생산→압출→가공→조립'의 ONE-STOP 공정 구축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와 안정적 공급 능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업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양명환 대주코스 사장은 "김제자유무역지역 주조 공장 설립을 기반으로 자사가 보유한 R&D와 연계해 다양한 미래 소재 개발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중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알루미늄 외길을 걷는 대주코스와 김제시의 투자협약 체결을 축하한다"며 "대주코스가 전북특자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더욱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결정해 준 기업 대표에게 감사드린다"며 "대주코스가 한국의 친환경 자동차 등 미래산업 발전을 이루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바르셀로나 'MWC 2024' 참관, 박람회 참가 용인 기업·수출 인턴 등 격려

이 시장 공약인 수출인턴 4명 용인 4개기업 돕도록 시가 모든 비용 부담...수출인턴 제도 해외에 첫 시행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아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세계 3대 첨단산업 박람회 중 하나인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를 참관하면서 AI(인공지능)와 반도체, 통신 분야 등의 최신동향을 살펴보고, 박람회에 참가한 용인시 기업 관계자 등을 격려했다.

지난 26일(현지 시각) 시작된 'MWC(Mobile World Congress) 2024'는 미국의 CES, 독일의 IFA와 함께 첨단산업의 세계 3대 전시회로 불리며, 특히 이동통신 분야 기술의 각축장으로 알려져 있다.

'미래가 먼저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의 MWC는 휴대폰의 온디바이스 AI(인공지능) 탑재로 AI 활용폭이 대거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의 모바일 중심에서 벗어나 AI, 클라우드, 반도체, 모빌리티, 헬스 분야 등에서 첨단기술들이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박람회가 됐다.

국내에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비롯해 역대 최대로 많은 160개사가 참여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인텔, 퀄컴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신기술·신제품 등을 전시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번 박람회에 용인특례시관을 개설해 용인 4개 기업의 기술·제품을 소개하고, 이들 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의 MWC에 별도의 공간과 부스를 마련해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용인특례시와 경상북도 두 곳 뿐이다.

시는 MWC 부스 설치비와 장치비, 운송료의 거의 대부분을 부담했으며, 참가기업 제품 홍보 등에 필요한 장비, 통역 인력 등을 지원했다.

시는 특히 이상일 시장의 공약 중 하나인 수출 인턴 제도를 MWC에 참가한 용인 기업들에게 처음으로 적용했다. 단국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에 속한 대학생 4명으

로 하여금 MWC에 참가한 용인 4개 기업을 위해 일하도록 시가 모든 경비를 부담한 것이다.

수출 인턴 지원은 시가 지난해부터 단국대 GTEP사업단과 협약을 맺고 시작한 사업으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등을 돕기 위해 전문 무역 교육을 받은 인턴을 기업으로 파견하는 제도다.

시가 개설한 용인특례시관에는 AI 기반으로 생성된 음악 연주 데이터를 드럼 등 여러 악기에 AI로 움직이는 기기를 연결해 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가상 스튜디오 플랫폼을 개발한 이모션웨이브 주식회사, 기계 등에 불이 났을 때 연결된 소화 장치가 곧바로 작동해 진화하는 등의 신속 자동 진화 시스템을 개발한 (주)엑션테크, 휴대폰 메시지를 무료로 대량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팀 플레이어, 복잡한 코딩이 없어도 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과 키오스크 등을 선보인 엔디에스솔루션(주) 등 4개사가 참여했다.

매출 규모가 2조원에 가까운 용인기업 수출팀은 단독 부스를 차려 뇌파 측정 등을 통해 스트레스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기술과 전기차 충전 기술 등을 선보였고, 역시 용인기업인 두비컴퓨팅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단체관에서 마이크로 데이터 센터 구축 기술을 전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관, KOTRA·한국무역협회 단체관을 방문해 참가기업들의 기술과 제품을 두루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SK텔레콤관과 SK텔레콤이 지원하는 스타트업관, 삼성전자관, KT관, 이스라엘 국가관 등도 방문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관에서 AI기반 기술로 실시간 통역이 가능한 신형 휴대폰 갤럭시 24, 처음으로 공개된 웨어러블 헬스케어 디바이스 '갤럭시 링'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었다.

KT관과 SK텔레콤관에서는 양사가 2025년 상용화할 계획인 도심항공교통(UAM)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물레이션

을 보거나 가상 체험을 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스라엘 국가관에서 이스라엘 정부 등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IT 기술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이 시장은 "MWC 2024는 지난 1월에 열린 미국 CES 등과 함께 세계 첨단산업의 신기술, 신제품이 모두 모이는 박람회인데, 이곳에 용인특례시관을 마련해 용인기업들을 지원하고, 용인기업 등이 첨단산업의 동향을 살펴 보도록 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시는 CES에 용인기업들을 위한 독립공간을 마련해 지원했지만, MWC에 용인관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시가 기업들을 가능한 열심히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이날 저녁 박람회에 참가한 용인기업 관계자, 수출 인턴 등과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시장을 비롯한 시의 공직자들이 관내 기업 기술력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MWC에 참가한 용인의 우리 기업들이 이번엔 좋은 경험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도 계속 응원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since 1978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명예문화관광축제



주최 Jindo | 주관 진도군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 전라남도 | 한국관광공사

경북교육청, '교육발전특구' 8개 지역으로 최다 선정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혁신에 박차

경북교육청은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공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포항시 등 8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안동시, 예천군 등 8개 시·군이다.

지역별 특구 운영 과제로 포함되는 포함형 신산업 분야와 고교-대학-지역기업을 연계한 교육혁신 체계 구축 모

델, 구미시는 전국 최초 '의료·보건' 연계 및 '24시 돌봄서비스' 등 아동 중심의 신개념 돌봄 체제 구축을 제시했다.

상주시는 거점형 유보통합과 늘봄 운영 모델, 칠곡군은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봉화군은 이주 사회를 대비한 이주 배경 사회에 적합한 교육인프라 조성, 울진군은 특화산업(원자력, 수소) 연관 앵커기업 확대 유치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K-인문교육을 통한 안동·예천형 공교육 혁신모델 정립과 지역 기반 산업(농·생명, 바이오, 문화관광 등) 연계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발전특구 운영모형을 제시했다.

선정된 시범지역들은 3년간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 전략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끌어내는 소임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지난 11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계획' 발표 이후,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수시 컨설팅, 협약식 등을 개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5월부터 시작되는 2차 공모에도 많은 지역이 지원

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윤근수/기자



해달피 신규교사, 영양교육의 새 빛이 되다

2024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 및 영양사랑 나라사랑 교수역량강화 연수 개최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지난 27일(화), 영양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오늘 28일(수)까지 2일간, 영양사랑 나라사랑 교수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하였다.

2024 신규교사 임명장 수여식은 2024. 3. 1.자 영양 관내 초·중등 신규교사 17명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수여하고, 신규교사의 교육적 사명을 담은 선서, 교육장 축하인사와 함께 단체 기념촬영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날 연수는 영양의 교육환경과 특색있는 교육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영양의 문화와 자연 및 2024 영양교육 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관내 교감과 교무부장, 특수교사가 멘토가 되어 신규교사를 초등, 중등, 영양, 특수 분과로 나누어 교무업무 전문성 향상과 교과지도와 생활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가 진행되었다.

이 후 영양이 가진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문인의 고장으로서의 정취를 갖추고 있는 장계향문화체육교육원을 자리를 옮긴 신규교사들은 협력멘토와 함께 모듬을 이루어 조직활성화를 위한 팀빌딩 과정에 돌입했다. 상호 이해를 위한 토론과 게임을 통해 긍정의 교육 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늦은 밤까지 이어질 영양 독립운동사 교육 콘텐츠 개발 해커톤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중학교 신규 교사 000는 '낯선 영양에 발령을 받고 생소한 지역의 문화와 환경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영양에 대한 소개와 현직 선생님들의 멘토링을 통해 영양은 학생들이 다채롭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가능성의 땅임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영양의 학생들과 함께 교사로서 성장하게 될 교직 생활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학년도 해달피 신규교사 영양사랑 나라사랑 교수역량강화 연수는 이틀 날 석보면의 두들마을을 탐방하고 영양의 여성 독립운동가인 남자현 지사의 생가 및 기념관을 지나 조지훈 문학관과 수비면의 족파리 자작나무 숲을 방문하여 영양이 가진 교육자로서로서의 생활문화와 역사, 자연을 실질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연수로 진행된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 김윤희 교육장은 '신규 교사들이 영양의 학생들이 가진 성장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높은 전문성과 따뜻한 성심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새 빛이 되어주길 바란다. 영양의 학생들과 함께 교사와 학교, 마을과 지역 모두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소통의 창구로서, 혁신의 선두로서 노력을 약속하겠다.'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3월 개학과 동시에 운영되는 늘봄학교 152교의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28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함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의 운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정책설명회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연초 늘봄학교 관리자,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정책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여왔다.

또한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 일반직공무원 17명을 증원 배치하여 기

경북교육청, 3월 늘봄학교 정상 운영 준비 완료

함께 누리고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경북형 늘봄학교 운영 문제없어

간제 교사와 외부 강사 채용 업무를 지원하고, 늘봄학교 152교에 교당 1명의 기간제 교사를 배치해 3월부터 늘봄학교 관련 신규 업무와 각종 민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했다.

또한 실버인력, 자원봉사자 등을 위촉하여 늘봄학교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늘봄학교 집중지원단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인력과 공간 마련,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논의했고, 늘봄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진행하는 등 준비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늘봄학교 운영 준비 상황 점검 결과, 1학기 152개 늘봄학교는 수요 조사와 강사 확보, 공간 마련, 프로그램 매칭 등 정상 운영을 위한 준비를 완료한 것

으로 확인됐다.

늘봄학교에서는 1차 수요 조사를 했고, 67%의 학생이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교육청은 추후 늘봄서비스 희망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대비한 추가 인력과 공간, 예산 등의 지원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1학기 운영을 희망한 152교를 시작으로 2학기부터는 468교 도내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는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에 중점을 두고 학교 적용 지원을 위한 놀이 중심 프로그램과 예·체능, 사회·정서 프로그램 등을 매일 2시간 이내 무

상 제공하며,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배움과 힘이 공존하는 아침늘봄, 저녁늘봄 등 다양한 늘봄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경북형 새늘봄 '온종일 완전 돌봄' 협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유비무환(有備無患), 미리 준비해 두면 근심할 것이 없다"라며, "지금까지 철저히 준비해 온 만큼 경북형 늘봄학교가 3월 정상 운영되어 학생과 학부모, 교원 모두가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예천교육지원청Wee센터, 위탁기관 연계 위촉 및 심층심리평가 업무협약

'우리(Wee)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지난 27일(화), 예천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관촬아심리상담센터 이진아 소장, 바움심리언어발달센터 김규원 원장, 토리아동발달센터 조혜란 원장, 안동성소병원 류은숙 임심심리과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식은 관내 위탁기관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의와 심층심리평가 기준, 대상 선정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운영 협의로 실시했다.

예천교육지원청Wee센터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관내 학생들에게 맞춤형 상

담을 진행하고, 효율적인 기관 연계와 정서행동특성검사 심층평가 진행 및 다양한 위기에 처한 학생들의 정서문제 해결과 심리적 안정 향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창희 교육장은 '이번 협약은 관내 학생들의 개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전문적 치료기관과의 긴밀하고 효율적 연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김선일/기자



'영주제일고등학교' 제30회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 3관왕

경북 영주제일고등학교는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0회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제30회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 출전한 2학년 박준선 선수는 단체스프린트 부문에서 1위, 스프린트 부문에서 1위, 1KM 독주 경기에서 1위를 기록하며 3관왕으로 값진 성과를 이루어냈다.

박준선 선수는 "제30회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을 달성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독님과 코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강호 교장은 "박준선 선수가 제30회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기쁘고 자랑

스럽다."라고 말했다.

김동삼 감독은 "박준선 선수가 제30회 트랙 아시아주니어선수권대회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라고 말했다.

김선일/기자



배워서 실천하는 아이신나! 경상교육

성장하는 나! 조화로운 우리! 함께 여는 미래!
교육공동체와 함께 아이들의 행복한 경험과 바른 성장에 힘쓰겠습니다.

교육장 이백근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Gyeongsan Office of Education

서대문구,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한다

2013년 세워진 기존 계획을 도시 여건 변화에 맞게 재정비해 지역 활성화 도모

서대문구는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356,498㎡)을 세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기 위해 2025년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구역은 2호선 신촌역과 이대역, 경의중앙선 신촌역에 인접한 곳으로, 이번 재정비를 통해 201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후 도시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을 반영하고 기존 지구단위계획 실태를 분석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용적률을 완화하고 인센티브 계획을 변경해 중심지 위상에 맞는 개발밀도를 확보하고 입지의 잠재력을 활용해 청년문화중심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용역 착수 후 계획안이 수립되면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변경 결정된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실현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면 신촌, 이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성북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활동 본격 가동

지난 2월 27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8명 위촉 및 교육 진행

서울 성북구가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8명을 위촉하고 노인 인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는 인권도시 성북을 구현하기 위해 2015년부터 구가 운영한 사업이다. 코로나19로 3년간 잠정 중단됐다가 지난 2023년을 기점으로 사업을 재개해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번에 위촉된 인권지킴이는 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 24개소에

에 입소한 어르신과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책임지는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으로 활동한다. 월 1회 대상지에 방문해 어르신 및 시설 관계자와 면담을 거쳐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인권지킴이는 구 인권센터에서 활동 중인 시민위원 4인과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인으로 구성됐다.

27일 위촉장 수여 후 명예지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 서울시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고건 과장이 강사로 나서 노

인 인권 및 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사례 등을 교육했다.

이승로 구청장은 "성북구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인권중진 기본 조례를 제정한 이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도 이를 위해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을 진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노인 인권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인 인권지킴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인권

도시 성북을 구현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강성원/기자



성동구, 2024년도 성동한양 상생학사 새학기 입주

지난해보다 2호 확대된 45호실 운영, 입주자 모집 완료하고 3월부터 입주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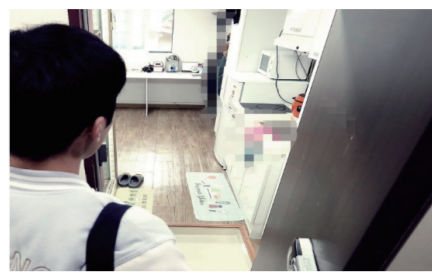
서울 성동구가 '성동한양 상생학사'의 2024년도 입주자 모집을 완료하고 오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2019년 3월 전국 최초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운영 6년 차를 맞이하는 '반값 기숙사'로, LH·성동구·한양대학교·임대인이 협력하여 한양대 학생들에게 기존 원룸 임차료의 절반 수준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LH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보증금 2,900만 원을 연 1% 대출로 지원하고 성동구와 한양대가 매달 15만 원의 주거비를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입주 학생은 보증금 100만 원과 면적별 월 임대료 20~30만 원, 주택도시기금이자 2만 5천 원 및 공과금을 부담하면 된다.

성동구는 2019년 3월 21세대 원룸을 확보하여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2세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45세대를 운영하여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학교 인근의 원룸에 비해 임차료가 저렴하며, 2명 이상 함께 지내야 하는 기숙사에 비해 1인 1실로 사용하여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어 매년 지원자가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45명 모집에 114명이 지원하여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상생학사의 입주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이며, 입주 후에는 성동구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지난 19일 성동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입주설명회에서는 상생학사 입주호실 추첨을 추천하고 입주예정자의 빠른 적응을 위해 입주자 지원사항 및 상생학사 이용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한 성동한양 상생학사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입주경쟁률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상생학사를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성원/기자

관악구, 지역경제 활기 불어넣는 재정 신속집행 총력 돌입

관악구가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율을 설정, 전라적인 재정집행 총력전에 돌입한다.

'지방재정 신속집행'은 경기 위축시기에 공공부문의 신속한 재정지출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구는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행정안전부 제시율보다 5.7%p 높은 60%로 설정했다.

목표에 따라 구는 재정집행 부문 예산액 2,493억 원 중 1,496억 원을 상반기 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경제와 밀접한 소비·투자부문은 1분기 중 673억 원을 집행해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방안으로 구는 ▲긴급입찰 ▲선금금 집행 활성화 ▲계약 관련 심사기간 단축 ▲수의계약 한시적 확대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단'을 구성, 재정집행 상시 접

강성원/기자



강남구, '키움식당' 오픈...맞벌이 가정의 아이 저녁밥 걱정 끝!

3월부터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에서 맞벌이·한부모 가정 초등학생에게 2,500원으로 석식 제공

키움식당

상업익종

- 대 상 : 초등학생 1~4학년
- 운영시간 :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 (영동대로 22)
- 운영일 :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 운영시간 : 화요일 저녁 18시~19시 / 목요일 저녁 12시~13시

이용방법

- 신청방법 : <https://naver.me/GTA3JAC6> (문의 02-550-1212)
- 이용료 : 2,500원
- 결제방법 : 계좌이체 ※ 이용료는 3월 15일 전까지 신청기간 내 신청기간 내 신청기간
- 이용문의 :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 (02-3414-8272)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혼자 밥 먹는 아이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영양가 있는 저녁밥을 먹을 수 있는 '키움식당'을 오는 3월부터 운영한다.

'키움식당'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시설인 다함께키움센터 가운데 강남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일원동 소재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영동대로 22)에서 운영한다. 기존에는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만 식사를 제공했는데 이번 신규사업을 통해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도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는 것이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한 밥, 국, 4가지 반찬, 과일 등으로 차려진 한 끼 급식을 2,500원에 제공해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있게 섭취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평일 저녁 18시~19시이며, 방학 중에는 12~13시에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다.

식당을 이용하려면 인터넷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식당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 링크를 통해 예약하면 된다. 예약 가능한 날짜는 2주 단위로 열리며, 이 기간에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비용은 계좌 입금하면 된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초등학생 아이들

을 대상으로 하므로 등본·건강보험자 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자세한 문의는 누리봄다함께키움센터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저녁 식사를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아이들이 끼니만큼은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키움식당을 새롭게 운영한다"며 "현재 11개소 운영 중인 다함께키움센터를 앞으로 수서역세권에 추가 개소함으로써 보다 강화된 인프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NH NongHyup

100% 영양고추
품질 관리를 위해 계약재배로 생산합니다

500g

남영양농협가공사업소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